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03

연중 기획특집

구제역 청정화! 한우산업 다시 세우기

파워인터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듣는다

5천년을 함께 해온
튼튼한 동반자, 한우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한우,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C.O.N.T.E.N.T.S

구제역 특집

특별기획 02-03

구제역 청정화! 한우산업 다시 세우기

파워인터뷰 04-0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듣는다

현장속으로 10

경기도 김포시 살처분 농가를 찾아서

축사 소독 및 백신접종 안내 11

KREI 축산관측 06

한우 & 유통시황 07

이슈 & 이슈 08-09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의 의미와 과제

한우자조금 뉴스 12-15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특 · 별 · 기 · 획

구제역 청정화! 한우산업 다시 세우기

지난 겨울, 한우농가는 공무원, 군인, 경찰, 축산관계자와 함께 구제역과 사투를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전파된 구제역은 예방접종이라는 최후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적극적인 방역노력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침출수 문제로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국내 축산물의 입지가 위축됨은 물론 한우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농가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우산업 전체에 직간접 피해, 보상은 일부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동제한이 해제된지 약 4개월. 초기 발생농가들은 축사내 소를 모두 매몰했지만 아직도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일부만 선지급된 상황이다. 번식농가는 개량의 노력을 상실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적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이동제한 농가 피해도 매몰농가 못지 않다. 설 대목 출하를 목표로 송아지를 입식, 사육해 오다가 명절 이후 가격 하락기를 맞아 수매를 실시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봤고, 지정 도축·가공시설을 통해서만 수매가 진행, 물량이 할당되면서 수매에 응하지 못



모두 힘을 합쳐 축산업 재건을

우리 축산업계는 구제역으로 한우 11만마리, 육우·젖소 4만마리, 돼지 329만마리(3월 1일 기준)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는 유사 이래 재난이라 불릴 만큼 최대의 가축질병 사태를 겪었습니다.

살처분으로 살아갈 기반을 잃고 그동안 망연자실해 있던 축산농가들이나 이동제한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던 축산업계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축산업을 일으키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며 농업 GDP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축산업을 다시 재건할 때이며 특히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기도한 한우산업의 회생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고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한 농가들도 많았다.

이와 함께 비발생지역의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 소비를 줄인데다가, 정부에서는 수매우를 입찰후 바로 매각하면서 시중에 수매육이 풀려 가격하락이 가속화 된 바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산업에는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발생농가와 이동제한 농가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상금과 각종 자금의 경우 조속히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 소비축진 대책 절실

한편 현재 한우산업은 소비감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1~7일동안 국내산 쇠고기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10년보다 평균 13.3%나 감소됐다고 밝혔으며 이를 반영하듯 구제역 발생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kg당 평균 경락가격 1만5,868원에 비해 올 해 2월 23일 기준 경락가격은 1만2,500원까지 떨어졌다. 한우음식점의 매출하락도 가속화 되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한우는 전체 4% 정도만 살처분 되었으나 국민들은 한우의 대부분이 구제역에 걸리고 살처분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구제역이 무해하다고 알면서도 먹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백신접종 청정국이 되면 미국, 호주 수입육이 구제역 청정국인 점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한우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이 진정국면을 맞아 범국가적인 한우소비축진 대책과 더불어 한우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학교급식, 군납 확대 등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한우산업 미래 담보하는 방역체계 만든다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농가 불안감 해소
홍수출하 · 수입쇠고기 증가 따른 가격하락 대비
소비자 부정적 인식 해소 · 군납 등 소비확대 나서야
중앙단위 집중 방역 컨트롤...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

이번 구제역으로 축산업계 전체가 뼈아픈 경험을 한 만큼 한우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국회를 비롯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가 방역의 틀을 새롭게 짜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선진화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 학계, 생산자단체, 업계, 언론 등 실무자를 총 10개반으로 구성하여 국가 방역 체계, 축산업허가제, 방역, 검역, 보상 · 수매 등 각 분야의 세부 추진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다시는 없도록

한우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입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앞으로 2~3년은 지속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청정화를 이뤄나가는 한다.

지금 한우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제대로 국가방역 · 검역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모두가 지켜나가는 일이다. 국회, 정부, 한우농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우산업 재정립에 앞장설 때다.



파워인터뷰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듣는다



강석호 의원 (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부·협회, 시장가격 형성 주시
수매대책 마련

백신접종·매물처리 과정
문제점 개선·교육 필요

Q. 이동제한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쇠고기의 도매시장 가격(1kg)이 전월평균 17,190원에서 지난 9일 14,110원으로 하락되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배경은 구제역으로 인한 수매의 문제, 수입 쇠고기 증가 등도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정책이 한·육우 200만마리 기반 구축이었으나 '10년 말 기준 한·육우 사육마리수가 292만마리로 '09년보다 10.9%(28만마리) 증가하여 수급의 문제도 함께 존재해, 가격 하락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어려운 농가를 위해 매물처리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동시에 사료, 정책자금 상환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Q. 정부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살처분 보상비도 시세의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 될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에 방역과 신고 등 대한 책임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구제역 재발 방지책으로 우선 시 해야 할 사항은?

우선, 개별 농가 단위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이론이다. 더불어 이원화된 정부의 방역체계를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역 조기 확산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매물에서 백신접종으로 정책을 변화하면서 겪은 문제점과 매물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작업절차서)를 보완하고 평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Q. 침출수 유출 및 동물복지단체의 살처분 반대운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약 35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과정에서 매물지 확보, 수의사 부족,약품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났다. 먼저, 축산농가의 매물지 사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매물 후 사후 관리가 필요 할 것이며, 안락사 및 마취제 주사제의 부족, 수의사 등의 부족 등 문제점 등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역 확산의 원인은 정부의 방역시스템 붕괴에 있다. 정부책임
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 살처분
보상기준은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이를 토대
로 농가들은 그 보상기준이 손실보상에 미흡함을 알면서도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살처분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이었다. 더 이상 정부의 신
뢰를 무너뜨리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Q. 구제역 재발 방지책으로 우선 시 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무용지물로 판명된 예찰시스템을 전면적
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예찰대상의 확대 및 항원
키트 도입 등의 구제역 조기발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
어 구제역을 초기부터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접근해 대
응하는 위기관리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의 기준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부
분은 법률화 할 필요도 있다.

Q.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소비촉진
을 위한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더 나아가 필요
시 자조금 이외의 재원을 적극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도 검토해
야 하겠다.

**Q. 정부가 한·미, 한·EU FTA 국회비준 전에 마련해야 할 대
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 대책 마련 후 비준 동의를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정부
는 아직까지 축산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완대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FTA 대책에 최초의 구제역은 전혀 고려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회 특위 구성을 통
한 철저한 검증과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

**Q. 한우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수매물량의 유통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정부수매물량의 즉각 방출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향후의 한우
수급에 큰 영향이 없다면 비축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폭락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필요시 자조금 이외 재원
적극적으로 활용
정치권도 앞장
소비촉진 캠페인도 검토



김우남 의원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KREI

축 산 관 측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 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krei.re.kr를 통해 자 세히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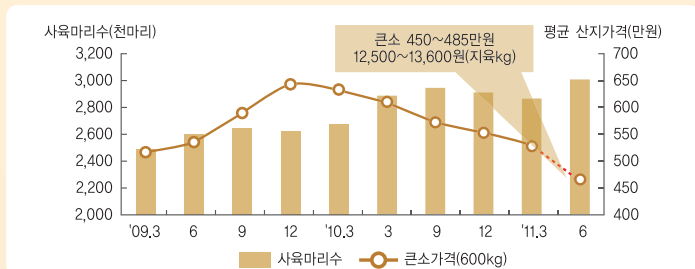
3~5월 한우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 송아지 생산 증가하지만 매몰처분 마리수가 많아 6월 사육마리수 증가폭 둔화
 - 구제역 발생으로 한·육우 매몰처분 마리수 11만4,000여마리(사육마리수의 3.9%)
 -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4.3% 증가하는데 그친 301만마리 전망

- * 도축과 수입량 증가로 3~5월 쇠고기 총공급량 전년보다 15.5% 증가
 - 구제역으로 출하 지연 물량이 많아 3~5월 도축마리수는 전년(14만5,000마리)동 기대비 15.1% 증가한 16만7,000마리 전망
 - 국내산 쇠고기의 대체수요 증가와 환율 안정으로 2011년 3~5월 쇠고기 수입량 은 전년 동기(5만7,000톤)대비 16.0% 증가한 6만7,000톤으로 예상

- * 수요 감소와 공급량 증가로 한우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지속 예상
 - 소비의향 감소와 도축마리수 및 수입량 증가로 3~5월 큰 소 산지가격은 450 ~485만원(1등급, 생체 600kg 환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크게(20~26%)하락 예상
 - 수송아지 가격 또한 전년(246만원)보다 하락한 190~210만원으로 전망

◆ 한·육우 사육마리수 및 산지가격 전망



◆ 요인별 가격등락 기여도

구분	도축마리수	수입량	소비	종합
2011년/10년	15.1% 증가	16.0% 증가	7.8~13.3% 감소	-
요인별 가격 등락 기여도	11.2% 하락	2.2% 하락	7.3~12.9% 하락	20.7~26.3% 하락

* 주 : 국내 생산량에 대한 가격 신축성 계수는 -0.74, 수입은 -0.14, 소비(수요)는 0.94를 적용하였음.

 **한우&유통시황** |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



출하 물량 조절 한우 소비심리 회복 총력 기울여야

작년 11월말에 발생하여 국가 재난사태까지 몰고 오며 사상 최대의 피해를 주었던 구제역이 3월 들어서며 진정국면에 진입되고 있어 그나마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는 듯하다.

한우 & 유통
시황

농경연의 '2011년 농업전망'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의 축종별 생산 감소율이 2010년 기준하여 양돈은 32%, 낙농 8.4%, 한·육우는 4%대로 추정, 축산물생산유발 감소액이 4조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가가치 감소액도 9,5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용감소 역시 4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구제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케 하고 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이후 한우는 추가 발생이 거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경고가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할 듯하다.

구제역 발생으로 2월말까지 살처분 매몰된 가축마리수가 347만3,000여마리로 나타난 가운데 그중 소는 15만마리 수준으로 타축종에 비하여 피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보여진다. 지속되어오던 한·육우 사육마리수 증가로 올해에는 출하물량이 증가하며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번 구제역 여파가 국내산 쇠고기 소비심리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겠다.

올해 1~2월 중 국내산 한·육우 도축물량(표 참조)은 11만 4,250여마리로 작년 동기간의 13만2,300여마리 대비 15.6%나 줄었다. 전체물량 중 한우는 9만7,860여마리로 작년 동기보다 13.4% 줄었다. 올해 1월중에 작년 1월보다 18.6%나 증가세를 보였던 한·육우 도축마리수는 2월 들어서며 설연휴로 인한 작업일수 감소, 이동제한, 설 이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출하지연 등으로 작년 2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올 1~2월 중 도축된 한우 중 암소비율은 36.7%로 작년 동기간의 43.2% 대비 5.7%가 감소하였으나 거세우비율은 작년 동기의 43.7%보다 14.3%나 증가하여 구제역 발생이후 암소

◆ 1~2월 한우 판정두수 및 경락 현황

구분	판정 두수	한우		
		도매시장 경락현황		
		경락 두수	1B이상 가격	평균 가격
2011년 1월	73,121	24,851	16,883	15,278
2011년 2월	24,748	8,804	15,290	13,760
소계	97,869	33,655	16,461	16,461

도축비율은 감소되었고 거세우는 상당기간 고급육 생산 강화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가 반영되었다.

1등급이상 출현율이 작년 1~2월의 60%에서 올해 동기간에는 64.8%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락가격은 하락폭이 커 1++B는 작년 2월의 2만600원에서 올해 2월에는 1만7,800원대로 14%, 1+B등급은 1만8,800원에서 1만5,200원으로 20%, 1B등급도 1만7,300원에서 1만3,700원으로 21%나 내렸다.

구제역 여파와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하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우거래가격은 지난 2월중의 도축물량이 큰 폭 감소되는 가운데서도 일시 조정 후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 3월중에도 이동제한과 가격 하락으로 지연되어오던 출하물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약세 폭이 커질 것도 우려되고 있다. 출하물량의 조절과 더불어 구제역으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근무, 경매과장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양돈 수급안정위원회 자문위원





이슈 & 이슈 |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의 의미와 과제

음성공판장 개장... 6월안 업무 정상화 목표

출고시간 지연, 물류비 상승 등 해결과제 산적

서울공판장이 막을 내리고 최첨단을 지향하는 음성공판장이 지난 2일 개장했다.
음성공판장의 경쟁력과 해결과제를 진단해 본다.



소 385마리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한층 넓어진 계류장 전경.

1986년부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의 중추 역할을 도맡아 왔던 서울축산물공판장이 26년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난 2일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이전했다.

2년간의 신축공사를 거쳐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81번지에 건립된 음성공판장은 국내 최고의 위생 안전 시설과 환경친화적 도축장을 지향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췄으며 동물복지 부문까지 고려한 적정 계류공간과 도축장비를 도입했다.

비록 건립 지연과 구제역 발생 등의 연유로 예상보다 이전 시기는 늦어졌지만 최대한 서울공판장을 뛰어 넘는 명실공이 서울·수도권지역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지이자 중부권의 새로운 축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자리 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 665억원을 투입, 총 4만7,984㎡ 부지위에 1만 3,57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 음성공판장은 1일(5시간 기준) 소 280마리, 돼지 1,800마리의 도축 능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돼지 도축라인에 박피와 탕박라인을 병행 설치해 탕박 수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기절기와 돼지 냉각터널, 소 도축시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제거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 육질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판장에서 사용한 폐수도 완벽히 처리해 방류수를 활용한 생태연못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공판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홍원 농협 축산유통부 부장은 “농협 축산경제부문에 있어 최대 투자사업인 음성공판장은 앞으로 축산물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 시간당 60마리 도축, 1일 110마리 가공 }
소 계류사 385마리 면적으로 조성
냉도체 개근 따른 출고 지연 해결해야



음성축산물공판장의 소 경매모습.

출고시간 지체, 물류비 상승 등 해결과제 산적

음성공판장은 신설 공판장으로써 제자리를 찾아가는 각종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개장을 앞두고 기기적 결함과 새로운 설비에 익숙해지지 못해 경매가 중단되는 등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한 타 도축장과 달리 냉도체 계근 후 등급을 판정하고, 경매가 진행돼 당일 유통이 어려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물류비 증가에 따른 기존 거래고객의 부담이 늘면서 중도매인들의 경쟁력저하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음성공판장의 한 중도매인은 “경매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다”며 “물류비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고 농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중도매인회는 이전까지 농협중앙회가 서울시에 납부했던 임대료가 절약된 만큼 음성공판장 활성화에 투자하고 물류비 지원과 경매 물량의 부산물을 공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6월 안에 제기능 수행에 최선

음성공판장은 개장 이후 빠른 속도로 업무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148마리에 불과했던 소 도축 마릿수가 7일에는 300마리, 8일에는 357마리, 9일에는 354마리로 점차 늘면서 서울공판장 시절 1일 평균 396마리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이병길 음성공판장 경영지원부장은 “중도매인과 매참인(매매참가인) 52명 전원이 가격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며 “6월 말까지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수행해온 가격제시기능과 축산물공급기능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고연홍 음성축산물공판장장

“최신 설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하겠다”

“우리는 국내 최고의 시설로 월등한 품질과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고연홍 음성축산물공

판장장은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이같이 밝혔다.

고 장장은 가락동에 비해 소비지에서 멀어진 했지만 생축의 물류비를 고려한다면 음성공판장은 이익을 내고 있다며 가락동에서 갖추지 못한 최신 설비들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고 장장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젠 정육점도 부분육을 공급받기 원한다”며 “1일 110마리의 소와 1,100마리의 돼지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장속으로 | 한우농가 탐방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처럼 다시 우뚝 서겠다

살처분으로 가슴아프지만 다시 걸리지 않도록 키울터...



김일선 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장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내 집 앞마당에 가축을 묻은 농가들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재입식이 거론되고 축산재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우농가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재입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일선 한우협회 김포시 지부장을 만났다.

김포시는 올해 초 구제역 발생으로 250여 한우농가의 30%가 넘는 85농가가 매몰처분 당했다. 규모가 큰 농가들의 피해가 많아 한우 전체 사육마릿수의 60% 이상을 땅에 묻었다.

“우리가 구제역에 일부러 걸리도록 방치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걸 막으려고 멸절한 소 다 묻었어. 하루아침에 새끼 같은 가축을 잃고 직업도 잃었어”

김 지부장은 1월 11일, 키우던 51마리 한우를 모두 땅에 묻은 후 꼬박 3개월을 우두커니 보내고 있다. 횡령그렁 남아있는 우사를 보면 울화가 터져 머리가 복잡하다.

“죄인 아닌 죄인이었지. 내 가축 다 잃은 것도 답답한데 살처분 이후로는 나다니질 못했어”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 평온하던 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아 김포시내의 큰 병원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농가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진다.

“보상금이니 농가 책임이니 운운하지만 나는 매일 사료주며 소들 커가는 것을 하루하루 보는게 낫겠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시 입식해야지. 실한 놈으로 골라 절대로 구제역 안 걸리게 꼼꼼 지키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연일 시끄러운 보상금 문제와 구제역 이후 겪은 고통들을 생각하면 축산을 떠나고 싶지만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한우를 키우는 일 뿐이다. 김지부장은 ‘이 땅 위의 자존심, 한우’처럼 다시 우뚝 서겠다는 의지로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거라...그냥 소 다시 건강하게 키워야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우 키우는 것 말고는 아는 것도 없으며 김 지부장은 실한 놈으로 골라서 절대로 구제역 안 걸리게 꼼꼼 지키면서 키우겠다고 다짐한다.



한 때 건강한 한우들이 가득했던 우사 앞마당은 처참한 살처분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축사 소독 및 백신접종 안내

»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소독과정에서 사람, 기계, 가구에 의해 재오염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천장, 축사의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하며 모든 축사에 대해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게 소독수를 뿌린다.

- 구제역 발생농장의 경우 비발생 축사부터 소독, 소독이 완료된 축사는 폐쇄시키고 경고판을 부착한다.
- 매물 위치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 축사주위의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 축사내부와 동일하게 소독을 실시한다. 잡초가 많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살포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하여 포르알데하이드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부 소독 절차 : 비어있는 우사를 먼저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옆 우사에 있는 가축을 세척·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사 및 가축에 대해 순차적으로 청소·세척·소독 실시

» 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처리요령

구제역 발생농가는 가축분뇨 소독 후 외부 반출 희망 시 관할 시·군 신고

가축분뇨 소독방법 :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칼리성으로 처리

- 가성소다(NaOH :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유통)를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2~3일간 처리 후 다시 구연산 300g으로 중화 처리한 후 반출
 -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9% 시중유통)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500g을 혼합하여 2~3일간 처리 후 다시 가성소다 250g으로 중화처리한 후 반출
- (퇴비) 포장된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 포장을 소독 후 반출

※ 발생농가의 퇴비(반제품)는 이동제한 해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 이동제한 후 비발생농가의 가축분뇨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되 주의 요망

»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재입식 시기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시기는 현행과 같이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경과 시, 비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입식 허용

농가는 입식 전 분뇨·깔짚 등 잔존물 처리완료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후 시·군에 신청하여,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입식

※ 재입식 절차 : 농가의 입식 신청(시·군) → 10일 이내에 가축방역관이 청소·분뇨처리·소독 등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농가는 조치사항 보완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 → 30일후 가축방역관의 재확인 및 입식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은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검토 후 조치 계획

» 송아지 구제역 백신 접종 안내

정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예방접종을 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도의 신청에 따라 매월 공급하며, 시·도(시·군)는 농가에서 백신을 공급하여 자가 접종을 확인하거나 소규모·노령 농가에 대해 공수의 등을 통원하여 접종하게 된다.

특히 농가의 예방접종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과 거래 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신 미실시 농가는 확인검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내려진다.

축종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비고
소	① 송아지-2개월령 1차, 4주후 2차접종 ② 모든 소-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ℓ / 두	의무접종

의사도 인정한 한우의 안전성 한우사랑 한마음 시식회



한우자조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의 안전성을 알림으로써 한우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한우사랑 한마음 시식회를 지난 10일 용산역에서 개최했다.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안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한우를 홍보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더했다.

한편 현장에서 한우 1마리를 부위에 상관없이 3만9,000원(1kg)에 판매해 시식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호응을 높였다.

SBS
생방송투데이
2월 25일



믿을 수 있는 한우를 싼가격에 맛보자. 구제역으로 한우가격이 하락된 현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력제로 믿을 수 있는 한우를 평소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소비촉진을 유도했다.

SBS
출발
모닝와이드
2월 26일



구제역 방역에 힘쓰는 농가를 소개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한우의 살처분 두수가 적어 소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우 새로운 비전 만들기

정책자문회의 개최, 한우산업 안정대책 마련

한우자조금은 2월 21일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구제역 이후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구제역 종식 이후 한우산업 안정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규모 소비촉진 활동 전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 할인점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한우고기 할인행사 및 판촉행사 지원과 함께 한우전문판매점, 정육점형 한우고기 식당, 온라인 한우고기 판매점 등의 소비 촉진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직영 및 조합의 자체 내 판매망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을 활용한 한우고기 판매 활성화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 종사자가 한우고기 소비를 선도하는 '한우농가 한우고기 1kg 더 먹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지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동안 이동제한으로 출하하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동제한 농가들의 이중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



어 이와 함께 재입식 희망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 등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한편 국경방역, 농가방역 설비, 방역체계 통제화 등 방역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소비위축 사전차단을 위해 매물가측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우 1⁺⁺등급, 29~30개월령 가장 선호

한우 등급표시제 소비자 인지도 높고 이해하기 쉬워...

한우고기의 맛을 고려할때 1⁺⁺ 등급과 29~30개월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표시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2010년 한우 최고기 등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90% 이상이 육질 등급 간 맛의 차이가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맛이 좋다고 응답했다. 도축 월령은 맛을 고려했을 때 한우 관련 종사자의 경우 29~30개월령이 31.5%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31~32개월령이 23.6%로 뒤를 이었다. 한우농가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도 29~30개월령이 44.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31~32개월령이 34%로 뒤를 이었다.

한우 등급 표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1.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현행 등급표시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도 63%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등급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2, 3, 4, 5등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출하월령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우농가들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한우농가의 55.7%가 거세우의 출하월령 단축이 필요치 않으며 60.5%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출하월령을 단축할 경우 육질등급이 떨어져 농가 수익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68.9%로 나타났고 출하월령을 단축하고도 맛과 육질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0.3%가 사료비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럴 경우 농가들이 사양기술에 적응하는데 평균 3년 7개월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생산비 절감 지원과 함께 우수 품종 개발과 어미소 개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블링 스코어는 현행 9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1⁺⁺ 등급까지 마블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nfo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국군장병여러분 한우먹고 힘내세요



한우자조금은 그동안 구제역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군부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우불고기를 전달했다. 남 호경 위원장과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육군본부에 방문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한우불고기를 6만2,500여명분을 위 문품으로 전달했다.

온라인 이벤트 실시

아는 것이 힘! 우리 한우 OX퀴즈



구제역으로 많은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는 요즘, 한우114에서는 한우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고 지식도 익히는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했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한우선물세트와 한우육포세트, 한우레이디버거세트 기프티콘 등을 증정했다.



온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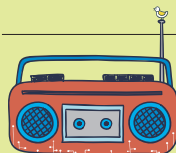
누리꾼의 한우사랑, 소비촉진 활성화 기대

한우 마케팅의 온라인 홍보가 누리꾼의 입소문을 타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손쉽게 한우맛집을 검색할 수 있는 한우 맛집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3만4,000여명이 넘는 유저가 다운 받아 한우소비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한우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한우사랑 블로그는 그동안 121만여명이 누리꾼이 방문해 한우정보를 공유했다.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한우114 트위터도 3천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팔로워하고 있어 차츰 그 효과를 더하고 있다.

또한 한우협회가 운영하는 '한우먹는날'에서는 최근 각광받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반값 한우세트를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름다운 사연은 한우를 싣고



한우자조금은 1~2월동안 MBC라디오 프로그램인 '여성시대'를 통해 '힘내라 2011'이라는 코너를 진행했다. 사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 채택된 청취자의 일터에 한우회식을 지원했다. 특히 채택된 사연 중에는 구제역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우농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어 소비자에게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알렸다.

한우의 새로운 맛을 개발한다.

‘All about Hanwoo’ 한우 보신·명품부위 연구 완료

등심, 안심 이제는 굽지만 말고 새롭게 드세요.

작년 2월 웰빙부위를 중심으로 한 ‘All about Hanwoo’에 이어 한우의 보신·명품부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우자조금은 푸드앤컬처코리아(김수진 원장)와 함께 요리를 연구 개발했다.

등심이나 안심의 경우 구워서 먹는 요리법이 대부분이며 사골, 꼬리, 도가니 등 보신 부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구매빈도가 적어 이에 따른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결과 한우의 보신·명품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열량이 높아 일품요리로 구성이 용이해 손님 접대 요리나 고급 요리의 아이템 구성이 가능해 소비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신 부위인 사골, 꼬리, 우족 부위는 기업이나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의 활용 범위가 가능해 향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기대된다.



안 심 탕 면

안심부위로 육면을 만들어 사골국물과 함께 먹는 요리로 육수와 고기를 2가지 모두 맛 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로써 단백질과 철의 함량이 높으며 고열량식으로 한끼 식사로 충분하다.

- 재료 및 분량** 안심 400g, 청경채 120g, 느타리버섯 80g, 대파 100g, 칼국수면 600g, 사골육수 2리터
- 양념장** 국간장 3큰술, 다진청양고추 1큰술, 고운고춧가루 2큰술, 다진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1큰술, 통깨 2큰술
- 만드는 방법**
1. 안심은 0.3cm 두께로 썰어 종이타월로 핏물을 닦아 낸 다음 사골 국물에 한 장씩 익혀낸다.
 2. 밀가루를 체에 한번 내린 후 소금을 넣어 많이 치대어 반죽을 한다. 비닐 봉투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여 약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다.
 3. 청경채는 깨끗이 씻어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4. 느타리버섯은 모양대로 떼어 놓는다.
 5. 대파는 5cm 길이로 썰어 1/2 켄 다음 끓는 물에 소금 1작은술을 넣어 살짝 데쳐낸다.
 6. 분량의 양념장을 만든다.
 7. 숙성 시킨 밀가루 반죽을 0.5cm 두께로 밀어 준 다음 30cm 정도의 자를 이 되도록 만든 후 밀가루를 위에 뿌려가며 3cm 정도의 넓이로 접는다.
 8. 접어놓은 밀가루 반죽을 0.5cm 두께로 썰어 국수면이 되도록 썰어 준다.
 9. 사골 국물이 끓으면 칼국수 면을 넣어 센 불에서 3분정도 끓이다가 청경채, 느타리버섯, 대파를 넣어 1-2분 정도 살짝 끓여 불을 끈 다음 양념장을 곁들여 그릇에 담아낸다.

애독자 코너



지난 2일 서울공판장이 음성으로 이전했습니다. 음성공판장은 최첨단 시설과 충분한 계류공간을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출고시간 지체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공판장의 하루(5시간 기준) 도축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한우자조금 3월호 8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살 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2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명진(전남 무안군), 권선희(경북 상주시), 정윤남(경남 거창군), 조수현(강원 춘천시), 신미숙(충북 제천시), 박삼옥(경북 영천시)

인증점 소개

만포한우갈비

전화 : 054-272-9366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8-7
메뉴 : 한우 갈비살(130g) 18,000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신선한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고기집 만포한우갈비. 만포한우갈비의 대표메뉴는 한우 갈비살을 사용한 소금구이와 양념갈비. 신선한 갈비에 소금만 뿌려 참숯화로에 구워 먹어보면 그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양념갈비는 독특한 맛으로 신선한 고기의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18가지의 재료들을 엄선해 만든 비법소스는 그리 강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양념이 신선한 갈비에 적당히 스며들어 그 맛이 일품이다. 또한 고기에 양념을 절여 두는 것이 아니라 족집에서 바로 발라 굽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의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 준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6권 제15호 통권 제65호 발행일 2011년 3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이아화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이미지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대대적인 소비홍보로 한우가격 안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홍보 기본방향

구제역에 이은 소값 하락으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한우자조금은 소값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구제역이 조기종식 되어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구제역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합니다.

◎ 주요 홍보 방안

〈 유통 · 소비 〉

- 범국가적 대대적 소비촉진 행사 (4월 중순 이후)
- 한우업체 공동 특별할인
 - 민족한우로 소비자 접근
 - 구제역이미지 조기 차단
 - 한우업체 조직화(협회 등)
- 군납 · 학교 급식 확대
- 소비홍보사업 강화 (광고, 미디어 홍보)
- 각종 하반기사업 상반기 집행

+

〈 생산 및 관련 업계 〉

- 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출하물량 계도
- 적정 사육두수를 위한 자율도태 추진
- 신규 진입 장벽(두수상한제 등) 추진
- 관련산업 종사자 소비선도 캠페인

소값 안정

